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 특성 및 태도와 입학 후 갖게 되는 전문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이 은 복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우 우 자 교수

- ◇ ;..... 연구 목적 ◇
- ◇ 관계 문헌 조사 ◇
- ◇ 가 설 ◇
- ◇ 연구방법 및 절차 ◇
- ◇ 결과 및 해석 ◇
- ◇ 요약 및 제언 ◇

I. 연구 목적

대학교정에 있는 간호학생을 정확하고 세리한 판단력, 높은 지성과 올바른 도덕관념을 지닌 하나의 훌륭한 여성 또는 전문직 간호원 및 지도자로 교육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떤 경험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간호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정¹⁾은 특수교육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몇몇 동기의 학생의 제 특성, 과거 경험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洪外二人²⁾은 전문교육인 간호교육은 반드시 학생들의 적성검사나 이와 유사한 검사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입학전에 가졌던 제 특성과 태도가 입학 후 그들의 간호학 내지는 전문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아가서는 본 학과 및 한국 간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II. 관계문헌 조사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로 어떤 학과를 택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하며 또 자기의 전공 분야로 택하며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얼마만큼 정확한 지식을 얻었느냐에 따라 그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차질이 있는지도 결정될 것이다.

Newton³⁾은 그의 연구에서 어느 누구 보다는 간호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간호학에 대해 가장 유익한 지식을 제공해 주며 고등학교 학생 자신이 간호보조원(nursing aide)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을 통해 간호원과 접촉하게 되어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의 지도 상담 교사(school counselor)도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 분야로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간호원은 자기 친척이나 친지, 선배 또는 학

교의 양호교사라고 보겠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도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고 각 담임 선생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병원에서 간호 보조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혹시 봉사단의 일원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고등학교 내에서 위생부에 가입하여 양호교사와 접촉할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활동에 참가했던 학생이 참가하지 않았던 학생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빨리 간호학을 선택했는지, 전과 희망자가 적은지 또는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林⁴⁾이 시행한 1969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조사에서 얻은 결과로는 1967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은 81.1%가 타인의 조언을 받았고 1969년도 신입생은 60.0%가 타인의 조언을 받았다. 또한 조언자로서는 가족원이 45.9%, 고교 교사가 16.7%, 친지(척)가 10.4%며 친우가 18.7%였다. 洪外 二人⁵⁾은 간호대학 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간호학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을 조사했을 때 부모, 선배 및 친구가 64.2%였고 모교의 추천이 16.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독자적 결정력의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간호학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가졌다고도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본 간호학과 학생들이 입학 전에 조언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와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조언을 받은 학생의 경우 조언자의 성격과 그 학생의 전과 희망 여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洪外 二人⁶⁾의 논문에서 대학과정의 간호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간호학 선택 동기를 조사한 결과 직업 생활 수단으로 간호학을 택한 경우가 40.0%,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28.8%, 그리고 외부의 권유가 23.8%로 나타났다. 林⁷⁾의 연구로는 1969년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의

35.0%가 가정환경 및 경제상태를 고려했고 20.0%가 장래의 직업 선택을 고려했으며 12.5%만이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간호학 선택 동기에 의하여 본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그 선택 동기별로 볼 때, 언제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택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의 선택 동기와 전과 희망 여부, 선택 동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간 또는 선택 동기와 졸업 후 먼 훗날에 나아갈 분야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Croog와 그의 二人⁸⁾에 의하면 일본 간호학생들이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택한 시기는 미국의 간호학생보다 늦었다고 발표되었다. 즉, 일본 간호학생의 3/4이 16세 이후에 간호학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1/4은 18세 이후에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河⁹⁾는 대학과정에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간호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에, 3.5%가 마지닥 시기에, 9%가 중학 시절에, 그리고 4%가 국민학교 시절에 간호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듯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택한 시기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본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학 선택 시기는 어떠한가 그 선택 시기와 전과 희망 여부, 선택 시기와 먼 훗날에 나아갈 분야 또, 선택시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간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입학전 신입생 모집 요강 참조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된 논문이 없으므로 본 학과 학생들을 다른 학과 및 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신입생 모집 요강 참조 여부와 본 학과의 의무연한제도에 대한 지식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연한에 대한 지식 유무가 졸업 후 일하고자 하는 병원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Ⅲ. 귀무 가설(Null Hypotheses)

본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조작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귀무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1.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활동이나 과외 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 기관의 방문 경험 유무와 간호학과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
2.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활동이나 과외 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방문 경험 유무와 간호학과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2)
3. 고등학교 시절에 위생부 가입 여부와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H₀3)
4. 고등학교 시절에 위생부 가입 여부와 본 간호학과 입학 후 타과로의 전과 희망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4)
5.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할 때의 조언 여부와 간호학과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5)
6. 간호학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받은 학생의 경우 조언자의 종류와 조언 받은 학생의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6)
7. 간호학을 전공분야로 선택한 동기와 그 선택 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7)
8. 간호학 선택 동기와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8)
9.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9)
10. 간호학 선택 동기와 졸업 후 먼 훗날 나아갈 분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0)
11. 입학 전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시기와 먼 훗날 나아갈 분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1)
12. 간호학 선택 시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2)
13. 입학 전 신입생 모집 요강 참조 여부와 본 학과 의무연환 제도에 대한 지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3)
14. 각 학년별과 졸업 직후 종사 하고자 하는 간호 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것이

다. (H₀14)

15. 입학 전 본 간호학과 의무연환 제도에 대한 지식 유무는 졸업 직후 취업하고자 하는 병원의 종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H₀15)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1970년 9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 3, 4 학년과 교양학부에 재학중인 본 학과 1학년 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각 학급에 직접 들어가 질문서를 배부하고 기입이 끝나는 대로 회수했으며 그 결과전 학생의 86.23%에 해당하는 238명으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다시 학년별과 구분하여 보면 1학년이 80명중 62명으로 74.69%, 2학년이 83명중 79명으로 95.2%, 3학년이 73명중 66명으로 90.4%, 4학년이 37명중 31명으로 83.8%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χ^2 분포검정법(Chi Square test)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고등학교 시절에 교내 활동이나 과외 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 기관에 가 본 일이 있었던 학생은 전체 해답자의 6.30%밖에 되지 않았으며(표 1-1) 이들을 그런 정형이 없는 학생과 비교하여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표 1-2) 귀무가설(H₀1)은 채택(accept) 되었다. 즉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 유무가 그들이 대학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4$, $df=1$, $p>0.30$)

<표 1-1> 고교시절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 방문경험유무의 백분율

의료기관 방문 경험 유무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 경험 있음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 경험 없음		무답	계
	수	%	수	%		
수	15	6.30	220	92.44	3	238
%					1.26	100.00

〈표 1-2〉 고교시절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 방문경험유무와 입학후 전과희망 여부의 관계

전과희망여부	전과희망여부		계
	전과희망있음	전과희망없음	
의료기관 방문유무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경험 있음	9	6	15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경험 없음	159	61	220
계	168	67	235

$x^2=1.04, df=1, p>0.30$ ※ 무답자: 3명

또한 고교시절에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가본 일이 있는 학생과 그런 경험 없는 학생이 대학 졸업 후 간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볼 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는 우연에 불과한 것이었다($x^2=2.25, df=3, p>0.5$). 그리하여 귀무가설(H_0)은 채택되었다. 학교 활동이나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Newton¹⁰⁾이 제시한 간호보조원(nursing aide)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훨씬 간호원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 전문 간호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표 2〉 고교시절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의료기관 방문경험유무와 대학졸업후 취업 희망기간과의 관계

취업 희망기간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 방문경험유무		계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경험 있음	과외활동의 일부로 의료기관 방문경험 없음	
결혼할 때 까지	5	95	100
애기 생길 때 까지	1	15	16
애기 생긴후에도 계속	3	19	22
일단 그만두었다가 필요시에 시작	2	32	34
계	11	161	172

$x^2=2.25, df=3, p>0.5$
※ 미취업희망자 및 무답자: 66명

고교시절에 위생부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학생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명으로 20.17%였으며 그들이 위생부에 가입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간호학 선택 시기가 빨랐는지를 고찰해

보았을 때(표3-2) 그 귀무가설(H_0)이 채택되었다($x^2=3.24, df=1, p>0.05$). 즉 고교시절에 위생부 가입 여부에 관련 없이 두 groups에서 모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교 졸업 이후에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가 그 전에 선택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고교시절 위생부 가입 여부의 백분율

수험부담률	위생부가입 여부			계
	위생부에 가입했음	위생부에 가입하지 않았음	무답	
수	48	189	1	238
%	20.17	79.41	0.42	100.00

〈표 3-2〉 고교시절 위생부 가입여부와 간호학 선택시기와의 관계

위생부 가입여부	간호학 선택시기		계
	국민학교 전-고교 2학년	고교 3학년-고교 졸업 후	
위생부에 가입했음	13	35	48
위생부에 가입하지 않았음	30	159	189
계	43	194	237

$x^2=3.24, df=1, p>0.05$ ※ 무답자: 1명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시기가 위생부에 가입했건 안했건 간에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생부 가입자는 Newton¹¹⁾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간호원(여기서는 양호교사)과 접촉할 시간이 많았으므로 위생부에 가입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간호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간호학과에 입학했으리라 추측되며 그렇다면 입학 후 다른 학과로 전과 희망하는율이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러나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시절에 위생부 가입 여부와 입학 후 전과희망 여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x^2=12.83, df=1, p<0.01$) 위생부에 가입했던 학생이 오히려 가입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전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Newton¹²⁾의 「간호원이 고교 학생에게 간호직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넣어 준다」는 제언과는 달리 양호교사가 위생부 학생들에게 간호직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넣어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표 4-1〉 고교시절에 위생부 가입 여부와 대학 입학후 전과 희망 여부와와의 관계

위생부 가입여부	전과희망여부		전과희망없음		계	
	수	%	수	%	수	%
위생부에 가입 했음	37	77.08	11	22.92	48	100
위생부에 가입 하지 않았음	131	68.95	59	31.05	190	100
	168		70		238	

$\chi^2=12.83, df=1, p<0.01$

또한 전체학생 중 전과를 희망했던 학생은 전과를 원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훨씬 많아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林¹³⁾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46.0%와 河¹⁴⁾의 대학과정의 간호학생의 전과 희망을 35.2%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전과 희망 경험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며 다른 두 경우는 현재 전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이다.

〈표 4-2〉 전과 희망 경험유무의 백분율 비교

	전과 희망 경험 있음	전과 희망 경험 없음	계
수	168	70	238
%	70.59	29.41	100.00

또한 전과를 원했던 학생 168명에게 전과 희망 원인을 물었을 때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 가장 많아 43.45%, 다음으로 높은 원인이 「사회의 간호학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으로 32.74%였으며 세번째로 높은 원인이 「보수가 적기 때문」으로 13.69%였다. 김¹⁵⁾도 대학과정의 간호학생에게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학과 학생들만의 특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林¹⁷⁾이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자기의 실력이나 가정의 경제상태와 장래 취직 선택을 기준으로 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학 후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이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과를 원한다는 학생을 직계 하려면 간호학과 입학 지원자에게는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입시 방법 외에 적성검사 및 흥미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사회의 간호학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전과하기를 원했던 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이 그와 같은 음성적인 태도를 갖기에 앞서 전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양성적인 태도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표 4-3〉 전과를 희망했던 학생들의 희망원인별 백분율 비교

전과 희망 원인	수	%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	73	43.45
사회 진출의 제약성 때문	12	7.14
사회의 간호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	55	32.74
보수가 적기 때문	23	13.69
두 답	5	2.98
계	168	100.00

다음으로 어느 학년 때에 전과를 원한 학생이 가장 많은가를 보았을 때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에서 가장 많아 57.14%며 2학년에서는 25.59%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고학년에서 일수록 전과 희망자가 적었다. 이 결과는 김¹⁷⁾의 결과와도 흡사한 것이어서 본 학과만의 특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4〉 전과 희망했던 학년별 학생의 백분율 비교

수 및 %	학년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	96	43	28	1	168
%	57.14	25.59	16.67	0.60	100.00

이와 같이 과반수의 학생이 전공 과목에 접하기도 전에 전과를 희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대하는 기초과목 자체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현재 1학년 해답자 62명 중 13명이 미적분학은 필요없는 과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학적 및 통계학적 기초지식은 있어야 타 학문을 이해하고 이를 간호학에 적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미적분 같은 과목은 거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

한다고 본다.

전과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과로 전과하기를 희망했는지 물었을 때 희망자 168명 중 심리학자가 가장 많아 18명이었고 다음으로 는 국문학과와 가정학과로 각각 12명씩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무답자가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구체적인데 까지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이 인간의 요구(human need)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및 교육적 요구를 알아 내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본 학과의 심리학 시간은 더 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심리학자로 전과하려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취미를 붙여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38명중 33명의 학생은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심리학을 더 첨가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표 5-1〉 간호학 선택시 조언여부 및 조언자별 백분율 비교

	수	조언자	수	%
타인의 조언을 받았음	161	부 모	75	31.51
		친지(척)	17	7.14
		선 배	31	13.02
		모교교사	37	15.55
		양호교사	1	0.42
타인의 조언을 받지 않았음	77			32.35
계	238			99.99

〈표 5-2〉 간호학 선택시 타인의 조언여부와 대학 입학후 전과 희망 여부와의 관계

조언여부	전과 희망 여부		계
	전과희망있음	전과희망없음	
조언을 받았음	113	48	161
조언을 받지 않았음	55	22	77
	168	70	238

$x^2=0.04, df=1, p>0.5$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할 때 타인의 조언을 받은 학생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65%로서 이는 河¹⁸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84.7%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체 대학과정의 간호학생들보다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간호학을 선택 할 때의 조언 여부와 대학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살펴 볼 때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귀무가설(H_0)은 채택된다. ($x^2=0.04, df=1, p>0.5$) 그런고로 입학 전에 타인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전과를 희망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의 조언을 받은 학생의 경우 부모의 조언이 전체의 31.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모교 교사로 15.55%였으며 세번 제로는 선배의 조언으로 13.02%였다. 부모의 조언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다른 대학 학생들과 같으나 모교 교사의 조언이 본학과 학생들에게는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⁹. 양호 교사의 조언을 받은 학생은 제일 적어 0.42%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양호교사의 활동범위가 극히 제한 되어 있고 학생들과의 접촉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6-1〉 여러 조언자별 학생의 전과 희망 여부

전과 희망 여부	조언자					계
	부모	친지(척)	선배	모교교사	양호교사	
전과 희망 있음	52	11	20	30	0	113
전과 희망 없음	23	6	11	7	1	48
계	75	17	31	37	1	161

$x^2=5.17, df=4, p>0.30$ 무답자 : 77명

또한 김²⁰의 연구에서 대학과정의 간호학생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원하고 싶은 10개의 직업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했을 때 「간호원」을 지적한 학생은 8번 제일 것으로 보아 간호원이거나 간호학생은 간호 전문직에 대해 보편적으로 음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호교사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이 여러 조언자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그 비율도 상당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

〈표 6-2〉

간호학을 선택한 시기별 백분율

수 및 백분율	선택시기	국민학교 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졸업후				무 답	계
					교 1	교 2	교 3	졸업후		
수		0	2	3	15	23	149	45	1	238
%		0	0.84	1.26	6.30	9.66	62.61	18.91	0.42	100.00

이 조언 했느냐에 따라 그 학생이 입학 후 전과를, 희망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의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귀무가설 ($H_0:6$)이 채택되어 ($\chi^2=5.17, df=4, p>0.30$) 어떤 사람의 조언을 받았던 간에 전과 희망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 조언자 중 아무도 간호학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학생들이 간호학을 자기 전공분야로 선택한 시기를 보면(표 6-2) 국민학교 전에는 전혀 없고, 국민학교 시절이 0.84%, 중학교 시절이 1.26%, 고등학교 시절과 졸업 후가 97.48%였으며 무답이 0.42%였다. 이는 김²¹이나 河²²의 간호원이 되겠다고 처음 생각한 시기별 조사와는 격심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학에 대해 생각은 오래 전부터 시작했으나 결정한 시기는 대부분이 고등학교이며 더우기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졸업 후가 그 결정기여서 그 때 결정한 학생이 81.52%에 달하였다. Croog²³의 일본 학생의 연구에서 전체의 3/4이 16세 이상, 1/4이 18세 이상에서 결정 했다는 결과는 교육 제도상의 차이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입학을 얼마 앞두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이 본조사결과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동기와 그 선택 시기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귀무가설 ($H_0:7$)이 채택되었다 ($\chi^2=3.18, df=5, p>0.5$). 즉, 표 7-1에서 보는 선택 동기별 선택 시기의 차이는 우연에 불과했으며 그 선택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간호학을 고등학교 3학년이나 그 이후에 선택하는 경우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까지에서 선택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과정에 있는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²³와 김²⁴의 연구에서는 각각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와 「가정 생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입학 동기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본 간호학과 학생들은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들고 있어 (41.18%) 전체 대학과정의 간호학생과 다

〈표 7-1〉 간호학 선택동기와 선택시기와의 관계

선택동기	국민학교 전-고교 2학년	고교 3년-졸업후	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5	8	13
사회와 인류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12	21	33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	5	25	30
현모양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3	19	22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14	83	97
취업이 용이한 학문	3	21	24
계	42	177	219

$\chi^2=3.18, df=5, p>0.5$ ※ 무답자 : 19명

〈표 7-2〉 간호학 선택 동기의 백분율 비교

선택동기	수	%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13	5.46
사회와 인류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33	13.87
다양한 인간 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	30	12.61
현모양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22	9.24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98	41.18
취업이 용이한 학문	24	10.08
무 답	18	7.56
계	238	100.00

른 점을 보이고 있다. 상기한 궤와 숲의 결과는 각각 1968년과 1969년에 얻은 것이어서 시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격차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Pankratz²⁶⁾의 1966년도에 시행된 간호학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간호학은 여러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주며 다른 사람의 부지를 위해 일할 수 있다」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yler²⁷⁾는 각 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극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그들이 의극에 나가 한 여성으로서, 한 간호원으로서 또한 한 대한민국의 민간 대사로 충분히 그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키우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성 있는 선택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본 학과 학생들에게 현재의 교과과정 중 필요 없거나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기술하게 했을 때 12명의 학생은 영어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22명은 영어시간을 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학생 개개인이 보다 흥미 있게 일반 교양과목과 기초학문을 이수하게 하려면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선택과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을 자기의 전공분야로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전과 희망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표 8) : 귀무가설(H_0)은 0.001의 유의기준(level of significance)에서 기각(reject)되어 선택동기와 전과 희망 여부와는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간호학 선택 동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사회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이라는 타아 중심적 내지 적극적 태도를 보인 학생은 그 선택 동기를 「헌프양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의극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또는 「취업이 용이한 학문」이라는 자아 중심적 내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보다 훨씬 전과 희망의 경향이 적었다.

간호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동기와 즐

〈표 8〉 간호학 선택 동기와 전과 희망 여부와의 관계

선택 동기	전과 희망 있음		전과 희망 없음		계
	수	%	수	%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4	2.61	9	14.06	13
사회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21	13.73	13	20.31	34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	15	9.80	14	21.88	29
헌프양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17	11.11	5	7.81	22
의극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78	50.98	18	28.13	96
취업이 용이한 학문	18	11.76	5	7.81	23
	153	99.99	64	100.00	217

$\chi^2=11.51, df=5, p<0.001$ ※ 무답자 : 21명

업 후 간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관과의 관계를 볼 때 (표 9-1) 그 귀무가설(H_0)은 채택되었다($\chi^2=23.48, df=15, p>0.05$). 다시 말하여 간호학 선택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졸업 후 얼마 동안 간호직에 종사하기를 원하느냐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 희망 여부와 취업 희망 기간의

〈표 9-1〉 간호학 선택 동기와 간호직에 종사할 기간과의 관계

선택 동기	결과 불확실	애기적	생각 없음	기후에 관계 없음	일단 필요할 때까지	그 다음에	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4	3	0	0	0	7	
사회와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12	2	5	6	25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	16	1	1	8	26		
헌프양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7	2	1	6	16		
의극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41	7	10	12	70		
취업이 용이한 학문	12	1	4	1	18		
	92	16	21	33	162		

$\chi^2=23.48, df=15, p>0.05$

※ 미취업 희망자 및 무답자 : 76명

<표 9-2>

졸업후 취업희망여부 및 취업희망기간별 백분율 비교

수 및 백분율	취업희망여부 취업희망기간	취업희망자				미취업자	무답자	계
		결혼할 때 까지	애기생길 때 까지	애기생긴 후 에도 계속	일단 그만두 었다 시작 필요			
수		100	16	22	34			
%		42.02	6.72	9.24	14.29			
수		172				55	11	238
%		72.27				23.11	4.62	100.00

백분율을 볼 때 (표 9-2)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학생의 72.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단 취업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시에 하겠다는 학생이 14.29%이기 때문에 졸업 직후 간혹직 취업 희망율은 57.98%에 지나지 않는다. 취업 희망 기간을 보면 결혼할 때 까지가 가장 많다. 42.02%였는데 이는 洪과 그 외의 연구자²⁸⁾에 의한 조사에서 결혼 전까지 취업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결과와 일치했다. 전문직 (profession)의 기준의 하나가, 그 구성원은 일생을 통해 그 직업에 종사한다²⁹⁾는 것인데 본 조사의 결과로는 애기가 생긴 후 까지도 간혹직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9.24%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간혹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을 남겨 준다고 본다.

간혹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동기와 먼 훗날 나아가갈 분야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표 10) 그 귀무가설 ($H_0:10$)이 채택되었으므로 ($\chi^2=$

10.24, $df=10$, $p>0.3$) 표 10에 나타난 차이는 우연적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학을 자기 전공 분야로 선택한 시기와 먼 훗날 나아가갈 분야와 관계가 없는지 살펴보면 표 1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귀무가설 ($H_0:11$)이 채택되었다 ($\chi^2=1.04$, $df=2$, $p>0.50$).

<표 11-1> 간혹학 선택 시기와 먼 훗날 나아가갈 분야와의 관계

선택시기 먼 훗날 나아가갈분야	국민학교 ~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후	계
	간혹교육자	9	
간혹행정가	1	10	11
어머니와 아내	18	91	109
계	28	137	165

$\chi^2=1.04$, $df=2$, $p>0.50$ ※ 무답자: 73명

<표 10> 간혹학 선택 동기와 먼 훗날 나아가갈 분야의 관계

	간혹 교육자	간혹 행정가	어머니 와 아내	계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 사회와 인류복지에 공헌 할 수 있는 학문	2	0	6	8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는 학문	6	4	13	23
현모양처의 준비로 적당 할 학문	6	2	12	20
의욕에 진출할 기회가 많 은 학문	4	0	16	20
취업이 용이한 학문	17	3	46	66
취업이 용이한 학문	7	1	9	17
계	42	10	102	154

$\chi^2=10.24$, $df=10$, $p>0.3$ ※ 무답자: 84명

<표 11-2> 먼 훗날 나아가갈 분야별 백분율 비교

수 및 백분율	나아가갈분야			기타 무답	계
	간혹 교육자	간혹 행정가	어머니 와 아내		
수	45	11	110	72	238
%	18.91	4.62	46.22	30.25	100.00

본학과 학생들이 먼 훗날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야를 볼 때 (표 11-2) 어머니와 아내가 되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46.2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기타나 무응답의 경우로 30.25%나 되었으며 세번 째로는 간혹 교육자가 되겠다는 학생으로 18.91%였다. 기타나 무응답의 경우는 1~2학년이 많았으며 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간혹학에 대해 생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와 아내가 되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 본 조사의 결과는 金³⁰⁾의 장래희망에 관한 의견조사에서 「가정에 관련하여 살겠다」는 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결과이다. 간호학 선택시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간과의 관련성을 볼 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무가설($H_0:12$)이 채택되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23$, $df=3$, $p>0.20$).

〈표 12〉 간호학 선택 시기와 졸업후 취업희망 기간과의 관계

선택시기 취업 희망기간	국민학교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 학년~졸업 후	계
결혼할 때 까지	17	82	99
애기가생길 때 까지	6	10	16
애기가생긴 후 에 도 계속	4	18	22
일단 그만 두었다 가 필요시에 시작	5	29	34
계	32	139	171

$\chi^2=4.23$, $df=3$, $p>0.20$ ※ 무답자 : 67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의무연한 제도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된 곳을 보면(표 13-1)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안 학생이 가장 많아 58%, 선배에게서 들은 학생이 다음으로 많아 32%였다.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많은 조언을 했던 가족원이나 모교 교사는 그 비율이 아주 적어 각각 5%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가족원이나 모교 교사는 특정한 학교를 권하는 것 보다는 간호학 자체를 조언한 것으로 보이며 단일 그들이 특정한 학교를 권했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입학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 참조 여부와 본학과의 의무연한에 대한 지식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표 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집요강을 읽은 학생은 읽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더 의무연한 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모집요강을 읽지 않은 학생은 읽은 학생보다 훨씬 의무연한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chi^2=63.41$, $df=1$, $p<0.001$). 그러므로 어느 학과에 대해서는지 보다 정확한 예비 지식을 가지려던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할 것을 작고

〈표 13-1〉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의무연한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정보얻은곳 수 및 백분율	신입생 모집요 강	선배	가족	모교 교사	양호 교사	계
수	58	32	5	5	0	100
%	58	32	5	5	0	100

〈표 13-2〉 입학전 신입생 모집요강 참조여부와 본학과 의무연한에 대한 지식유무와의 관계

의무연한제도에 대한지식유무 수 및 백분율	의무연한제도에 대해 알았음		의무연한제도에 대해 몰랐음		계	
	수	%	수	%	수	%
신입생 모집요 강 참조 여부						
신입생 모집 요강 읽었음	93	61.59	58	38.41	151	100
신입생 모집 요강 읽지 않았음	7	8.24	78	91.76	85	100
계	100		136		236	

$\chi^2=63.41$, $df=1$, $p<0.001$ ※ 무답자 : 2명

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권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모집요강을 읽고도 의무연한에 대해서 모르고 입학한 학생이 전체 모집요강을 읽은 학생의 38.41%나 된다는 것은 학생이 간호학과에 대한 기록을 세심히 읽지 않았거나 학교당국에서 의무연한에 대해 모집 요강에 명백히 밝히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각 학년별과 졸업 직후 종사하고자 하는 간호분야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때 ($H_0:14$) 표 1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40$, $df=6$, $p>0.20$). 그리고 표 14-1과 표 14-2에서 보면 어느 학년에

〈표 14-1〉 각학년별 졸업직후 종사하고자 하는 간호분야

취업희망분야 학년	임상간호	보건간호	간호교육	계
1 학년	34	3	11	48
2 학년	41	2	15	58
3 학년	38	4	8	50
4 학년	17	5	5	27
계	130	14	39	183

$\chi^2=7.40$, $df=6$, $p>0.20$

※ 미취업 희망자 및 무답자 : 55명

〈표 14-2〉 졸업직후 종사하고자 하는 간호분야의 백분율

취업희망분야 수 및 백분율	임상 간호	보건 간호	간호 교육	비취업 무답	계
수	130	14	39	55	238
%	54.62	5.88	16.38	23.11	99.99

서든지 졸업 직후에는 임상간호를 택하겠다는 학생이 제일 많았고(54.62%) 그 다음으로는 간호교육이 많아 16.38%였다. 이러한 결과는 金³¹⁾의 조사 결과와 흡사했다.

그러면 졸업 직후 임상간호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 중에서 원하는 병원의 종류와 본 학과의 의무연한 제도에 대한 지식 유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면 표 1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귀무가설($H_0:15$)은 채택되었다($\chi^2=0.28$, $df=1$, $p>0.50$). 즉 입학 전에 본 학과의 의무연한에 대해 알고있는 학생이나 모르는 학생이나 간에 본 대학병원보다는 타 종합병원을 더 많이 취업장소로 택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졸업 직후에 종사할 병원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표 1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43.02%),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은 기타나 무답이었고(31.84%), 세 번 채르 많은 학생들이 병원의 시설 부족으로 좋은 질의 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16.76%)이라고 말했다. 기타나 무답을 표시한 학생은 대부분이 1~2학년 학생으로 입상이나 취업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대학 졸업 간호원에 대한 매우 문제

〈표 15-1〉 입학전 의무연한에 대한 지식유무와 졸업직후 취업하고자 하는 병원과의 관계

취업희망병원 의무연한에 대한 지식 유무	서울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타 종합병원	계
의무연한에 대해 알았음	25	33	58
의무연한에 대해 몰랐음	34	37	71
계	59	70	129

$\chi^2=0.28$, $df=1$, $p>0.50$

※ 임상간호를 택한 130명 중 1명은 무답

를 개선하고 신속하는 병원에 충분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구와 설비를 마련한다면 많은 졸업생은 본 병원에 남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2〉 졸업직후 취업장소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선택이유

수 및 백분율	수	%
비선택 이유		
의무연한 제도가 있기 때문	15	8.38
병원시설의 부족	30	16.76
적은 보수	77	43.02
진급의 난절	0	0
기타 및 무답	57	31.84
계	179	100.00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273명 중 응답자 238명(87.18%)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대학 입학 전에 가졌던 의뢰기관 방문경험, 위생부 활동, 간호학 선택시의 조언, 간호학 선택시기, 간호학 선택시기 전 입생 모집요강 참조 여부 및 의무연한 제도에 대한 지식 유무 등이 간호학과 입학 후 전과 희망, 졸업 후 취업 희망 여부, 취업 희망 기간, 및 먼 훗날 나아갈 분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χ^2 분포 검정법(Chi square test)과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1) 고교시절에 위생부에 가입했던 학생이 가입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전과를 원한 경우가 많았다. ($p<0.01$)
- 2) 간호학 선택등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사회와 인류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 또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하는 학문」을 지적한 학생은 「현모양처의 준비로 적당한 학문」,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또는 「취업이 용이한 학문」을 지적한 학생보다 훨씬 전과를 희망한 경향이 적었다. ($p<0.001$)

- 3) 신입생 모집요강을 읽은 학생은 읽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더 본 학과의 의무연한 제도를 알고 있었다. ($p < 0.001$)
- 4) 고교시 과외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뢰기관 방문 경험 유무와 전과 희망 경험 유무와 그리고 의뢰기관 방문 경험 유무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관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고교시 위생부 가입 여부와 간호학 선택 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 6) 간호학에 대한 타인의 조언 여부와 전과 희망 경험 유무, 여러 조언자와 그 학생의 전과 희망 경험 유무와는 무관했다.
- 7) 간호학 선택동기와 선택시기, 선택동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간, 선택 동기와 먼 훗날 나아갈 분야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 8) 간호학 선택시기와 먼 훗날 나아갈 분야, 선택 시기와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 9) 각 학년과 졸업 직후 취업 희망 분야, 의무연한제도에 대한 지식 유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병원 종류와도 무관했다.
- 10) 고교시절에 과외 활동의 일부로 병원이나 기타 의뢰기관에 가 본 일이 있는 학생은 6.30%에 불과했다.
- 11) 고교시절에 위생부에 가입해서 활동한 학생은 20.17%였다.
- 12)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조언을 받은 학생은 67.65%로서 다른 대학과 정의 간호학생들 보다 조언을 덜받은 결과이다. 조언자로서는 「부모」가 가장 많아 31.51% 였고 다음으로는 고교 교사로 15.55%였다.
- 13) 대학 입학 후 전과를 희망한 적이 있는 학생은 70.59% 였고 그 원인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많아 43.45%였고 전과를 원했던 학년은 1학년으로서 전과 희망자의 57.14%가 이 때에 원했다. 전과 희망 학과는 심리학과가 가장 많았다.
- 14) 간호학을 자기 전공분야로 선택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때나 졸업 후가 가장 많아 81.52%였다.

- 15) 입학동기로 「의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은 학문」 이라고 지적한 학생이 가장 많아 41.18%였다.
- 16) 졸업 직후 간호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76.8%이고 결혼 할 때 까지 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42.02%였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졸업 직후에는 임상 간호 분야가 가장 많아 54.62%이고 간호 교육이 다음으로 많아 16.38%였다.
- 17) 본 대학병원을 취업 희망 장소로 택하지 않는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이 가장 많아 43.02%이고 「높은賃의 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이 다음번으로 많아 17.76%였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내하고자 한다.

- 1) 간호학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 때문에 전과를 원한다는 학생 수를 줄이려면 간호직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좀 더 폭 넓게 사회에 대해서 간호학의 정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시켜야 한다.
- 2)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과하겠다는 학생 수를 줄이려면, 입학 시험 당시에 적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입학원서 제출시에 고등학교에서 시행한 적성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 3) 전공과목에 충분히 접하기도 전인 1학년에서 전과를 원한 학생이 전체 전과 희망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인 것은 그 당시에 배우는 교과목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며, 1학년 부터 기초적인 전공과목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4) 간호학이 심리학,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심리학과 사회학의 시간을 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심리학과로 전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을 두계 할 수가 있

다고 본다.

- 5) 각 학생의 선택동기, 취미 및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선택과목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6) 졸업 간호원의 이직율을 줄이고 간호직이란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려면 전문단체가 주동이 되어 간호원의 경제보장 제도를 확립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haracteristics &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before Entrance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Profession after Entra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before entrance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profession after entra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jects of this study are 238 nursing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ata is analyzed by Chi square test and percentage.

The results significant at or below 0.05 level are as follows: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school health activities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at high school are more likely to leave nursing than those who have no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as her career and rate of hoping transfer to other field.

That is, those who selected nursing for such reason as "Mission given to myself," "Working opportunity for the welfare of others," or "Meet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re less likely to leave nursing than those who selected "Excellent preparation for being a housewife," "Many opportunities to go abroad," or "Job available anywhere without difficulty."

Those who have read University bulletin gain more information about obligation system than those who have not.

참 고 문 헌

1. 정범모 : 교육과정, 중앙교육출판사, 1961, p.49.
2. 홍신영 외 2명 :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조사연구,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69, p.31.
3. Newton, Mildred E.: "How They Learned about Nurs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47:(2) 107-108, Feb. 1947.
4. 임승권 : "1969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조사," 학생연구, 7:(1)47, Dec. 1969.
5. 홍신영 외 2명 : *Op. cit.* p. 32.
6. *Ibid.* p. 32.
7. 임승권 : *Op. cit.* p.46.
8. Croog, S.H. and others: "Career Decisions of Student Nurses in Jap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23-27, Jan. 1966.
9. 하영수 :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I)—입학동기 및 교과과정에 대한 반응조사—,"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논총, 3:141, 1969
10. Newton, Mildred E.: *Op. cit.* p.107-108.
11. *Ibid.*
12. *Ibid.*
13. 임승권 : *Op. cit.* p.50.
14. 하영수 : *Op. cit.* p.148.
15. 김철자 : "대학 간호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일조사," *이화간호학회지*, 4:18, 1970.
16. 임승권 : *Op. cit.* p.47.
17. 김철자 : *Op. cit.* p.18.
18. 하영수 : *Op.cit.* p.141-142.
19. 김철자 : *Op. cit.* p.15.
20. *Ibid.* p.22.
21. *Ibid.* p.15.
22. 하영수 : *Op. cit.* p.141-142.
23. Croog, S.H. and others: *Op. cit.* p. 23-27.
24. 하영수 : *Op. cit.* p.140.
25. 김철자 : *Op. cit.* p.17.
26. Pankratz, Loren D. and Pankratz, Deanna M.: Determinants in Choosing Nursing Career," *Nursing Research*, 16:(2) 171, Spring, 1967.
27. Tyler, Ralph W.: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0, p.4-7.
28. 홍신영 외 2명 : *Op. cit.* p.33.
29. Shephard, William: "The Professionalization of Public Health,"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38: 146, Jan. 1948.
30. 김철자 : *Op. cit.* p.27.
31. *Ibid.*